

##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9년 4월 6일

교사 : 김은아

목표 : 1. 지난 시간 수업내용을 쪽지시험을 통해 복습할 수 있다.

2.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의 실시>에 대해 알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3. TOPIK 문법 문제를 통해 문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4. 자주 사용되는 한자에 대해 알 수 있다.

5. 관용어의 쓰임을 알 수 있다.

6. <정조, 학문을 발전시키다>에 대한 읽을 자료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교재 : 네이버 초등 백과사전, 7급 한자교재,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SAT KOREAN

교 시	수 업 내 용
1교시 9:30-10:15	숙제 검사 및 쪽지시험
2교시 10:15-11:00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의 실시> 읽고 조선 후기 공부
점심 11:00-11:20	
3교시 11:20-12:00	TOPIK 문법 문제
4교시 12:00-12:40	줌바수업(박영신 선생님)
숙제	1. 한자 2. 관용어 3. 읽기자료

오늘 배운 내용과 숙제로 공부해 온 내용을 다음주에 쪽지시험 봅니다.





# 7급 제2회 기출 및 예상문제

1 다음 밑줄 친 漢字語(한자어)의 **음(음 : 소리)**을 쓰세요.

보기

漢字 → 한자

- (1) 植木일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                      )
- (2) 자연환경은 後世에 물려줄 인류의 재산입니다. (                      )
- (3) 박물관에 色紙 공예품이 전시되었습니다. (                      )
- (4) 地上에 사는 동물은 아가미가 없습니다. (                      )
- (5) 나는 內心 동건이가 이기기를 바랐습니다. (                      )
- (6) 길을 건널 때는 左右를 살피고 건너야 합니다. (                      )
- (7) 수출이 前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                      )
- (8) 학생들이 下校한 뒤의 학교는 조용합니다. (                      )
- (9) 강아지는 내가 좋아하는 動物입니다. (                      )
- (10) 그는 左手를 내밀었습니다. (                      )



월 일

화인

이름

2 다음 漢字(한자)의 訓(훈 : 뜻)과 音(음 : 소리)을 쓰세요.

보기

字 → 글자 자

- |                      |                       |
|----------------------|-----------------------|
| (1) 左 (            ) | (2) 右 (            )  |
| (3) 色 (            ) | (4) 植 (            )  |
| (5) 前 (            ) | (6) 內 (            )  |
| (7) 後 (            ) | (8) 上 (            )  |
| (9) 物 (            ) | (10) 下 (            ) |

3 다음 밑줄 친 단어의 漢字語(한자어)를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쓰세요.

보기

① 內面    ② 天下    ③ 後日    ④ 海上

- (1) 한고조 유방은 마침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            )
- (2) 후일을 도모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            )
- (3) 전 해상이 흐리고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            )
- (4) 내면 깊숙이 잠재해 있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            )





## 7급 제2회 기출 및 예상문제

- 4 다음訓(훈: 뜻)과音(음: 소리)에 맞는漢字(한자)를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쓰세요.

보기

- ① 物      ② 後      ③ 色      ④ 內      ⑤ 左  
⑥ 前      ⑦ 右      ⑧ 上      ⑨ 下      ⑩ 植

- (1) 빛 색 (                      )      (2) 윗 상 (                      )  
(3) 왼 좌 (                      )      (4) 뒤 후 (                      )  
(5) 물건 물 (                      )      (6) 오른 우 (                      )  
(7) 안 내 (                      )      (8) 심을 식 (                      )  
(9) 앞 전 (                      )      (10) 아래 하 (                      )

- 5 다음 밑줄 친 구절의 뜻에 가장 가까운漢字語(한자어)를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쓰세요.

보기

- ① 同色      ② 植木      ③ 前年      ④ 前後

- (1) 몸을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                      )  
(2) 한 사람이 한 그루씩 나무를 심었습니다. (                      )



월 일  
이름



- 6 다음 漢字(한자)의 상대 또는 반대되는 漢字(한자)를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쓰세요.

보기 ① 後 ② 植 ③ 下 ④ 色

(1) 上 ↔ ( ) (2) 前 ↔ ( )

- 7 다음 漢字語(한자어)의 뜻을 쓰세요.

(1) 市內 ( )  
(2) 白色 ( )

- 8 다음 漢字(한자)의 진하게 표시한 획은 몇 번째 쓰는지 보기에서 찾아 그 번호를 쓰세요.

보기 ① 첫 번째 ② 두 번째 ③ 세 번째 ④ 네 번째  
⑤ 다섯 번째 ⑥ 여섯 번째 ⑦ 일곱 번째 ⑧ 여덟 번째  
⑨ 아홉 번째 ⑩ 열 번째

(1) 左 ( ) (2) 內 ( )



## 8급 한자 복습

월 일

이름

확인

호린 한자를 필순에 맞게 쓰고, 빈칸에 훈(뜻)과 음(소리)을 쓰세요.

1 韓日 친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훈  음

2 三月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훈  음

3 火山이 폭발했습니다.

훈  음

4 바닷속에는 수많은 水中 생물이 있습니다.

훈  음

5 土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훈  음

6 할아버지는 年金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훈  음

7 우리나라 國土는 산지가 많습니다.

훈  음

8 山水가 아름답습니다.

훈  음

9 東山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훈  음

10 西山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훈  음



## 대화



선생님: 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한 대로 문법 시험을 보겠어.  
 학생들: 네? 무슨 시험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요.  
 선생님: 지난주에 분명히 말했잖아. 반장, 오늘 시험 본다고 했지?  
 반 장: 글썄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학생 1: 맞아요, 선생님.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우리 반에서 기억력이 제일 좋은 반장의 말이 맞을 거예요.  
 선생님: 하하하. 이 녀석들 손발이 척척 맞는구나. 만약에 시험 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면 혼날 줄 알아.  
 학생 2: 거짓말이라니요? 반장처럼 착한 모범생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 좋아. 오늘 시험을 안 보는 대신 다음 주 시험 문제는 훨씬 더 어렵게 낼 거야. 모두 열심히 공부해야 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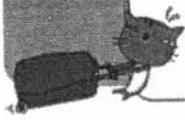
※ 손발(이) 맞다: 일을 할 때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과 일치하다

### 활용예문

- ▶ 손발이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하기는 정말 힘들다.
- ▶ 우리는 쌍둥이라서 생각도 비슷하고 손발도 잘 맞아요.
- ▶ 가: 저 두 사람 손발이 척척 맞네.  
 나: 오랫동안 함께 일해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대요.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반장  | <input type="checkbox"/> 기억력 | <input type="checkbox"/> 녀석          | <input type="checkbox"/> 척척 | <input type="checkbox"/> 혼나다 | <input type="checkbox"/> 모범생 |
| <input type="checkbox"/> 쌍둥이 | <input type="checkbox"/> 눈빛  | <input type="checkbox"/> -(으)ㄹ 리가 없다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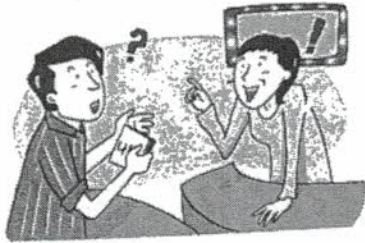


## 함께해요



친구와 같이 '스피드 퀴즈' 게임을 해 보세요.

### 게임설명



여러 가지 단어를 쓴 카드를 준비해 두고 두 사람씩 팀을 만듭니다. 한 사람은 단어를 보며 설명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설명을 듣고 단어를 맞히는 게임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단어를 맞힌 두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어느 팀이 가장 손발이 잘 맞을까요?



친구와 같이 '연상 퀴즈' 게임을 해 보세요.

### 게임설명

한 사람이 단어 카드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네 개의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그 단어들을 듣고 빨리 정답을 말하면 이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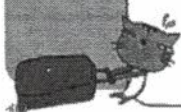
보기 : 배추, 냉장고, 볶음밥, 짜장

정답 : 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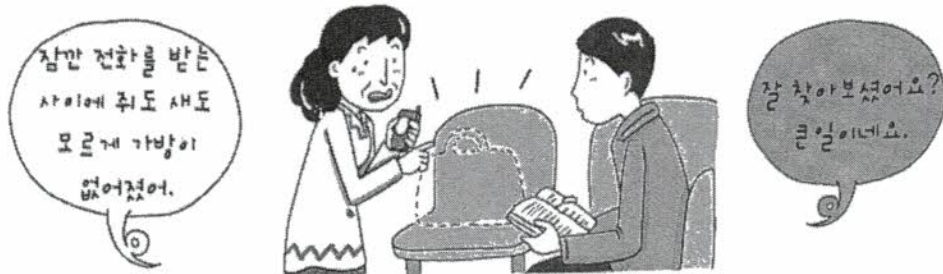
### 한 걸음 더

- ▶ 손발이 따로 놀다(→) 이렇게 손발이 따로 노는데 언제 이 일을 끝낼 수 있을까요?
- ▶ 손(이) 빠르다(⇨) 일을 빨리 하다  
언제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정말 손이 빠르군요.
- ▶ 손(을) 잡다(⇨) 서로 도와 가며 일하다  
우리 회사는 내년부터 외국 기업과 손을 잡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 대화



아주머니: 저기, 학생! 혹시 여기에 있던 까만색 가방 못 봤어?

민 수: 가방요? 못 봤는데요.

아주머니: 분명히 여기에 두었는데 잠깐 전화를 받는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가방이 없어졌네.

민 수: 잘 찾아보셨어요? 큰일이네요.

아주머니: 어휴, 어떻게 하죠? 지갑 안에 현금이랑 신용카드도 들어 있는데.

민 수: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경찰서에 가 보는 것이 좋겠어요. 까만색 가방이라고 하셨지요?

아주머니: 경찰이 내 가방을 찾을 수 있을까?

민 수: 먼저 카드 분실신고부터 해야겠네요.

아주머니: 학생,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찾을 생각도 못했을 거야.

※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 활용예문

▶ 그녀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떠나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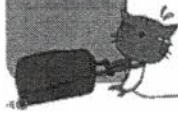
▶ 책상 위에 둔 서류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 가: 어제 옆집에 도둑이 들어 쥐도 새도 모르게 집에 있는 현금을 가져갔대요.

나: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현금 |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 <input type="checkbox"/> 살펴보다 | <input type="checkbox"/> 분실신고 | <input type="checkbox"/> 한마디 | <input type="checkbox"/> 서류 |
| <input type="checkbox"/> 도둑 | <input type="checkbox"/> -(으)ㄹ 생각도 못하다 |                               |                               |                              |                             |



## 함께해요



다음의 글을 읽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 '버뮤다 삼각지대 -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곳'



미국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와 버뮤다 제도, 그리고 서인도 제도의 푸에르토리코 섬을 삼각으로 연결하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죽음의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1609년부터 이곳에서 많은 배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에는 61척의 배와 40대의 비행기가 사라졌으며 1973년에는 2만 톤이나 되는 노르웨이의 화물선이 사라졌다. 1840년대부터 '악마의 바다'로 불린 버뮤다의 삼각지대는 당시 그곳에서 살아난 사람들로부터 많은 경험담과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곳을 피해 다녔다. 하지만 이런 소문을 믿지 않고 악마의 바다로 갔던 사람들 중에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비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세요.

한 걸음 더

- ▶ 쥐죽은 듯하다(⇒) 매우 조용하다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시끄러운 교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 ▶ 쥐구멍에 들어가다(⇒) 몹시 부끄러워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  
여자 친구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하다니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다.



## 35 손발(이) 맞다 36 쥐도 새도 모르게



##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손발이 맞다    손이 빠르다    쥐도 새도 모르게    쥐죽은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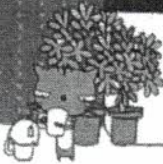
- 1 가: 교실이 \_\_\_\_\_ 조용한데 무슨 일이 있어?  
나: 곧 기말 시험이 시작되잖아. 몰랐어?
- 2 가: \_\_\_\_\_ 아이가 사라졌대지요?  
나: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 3 가: 마이클 씨, 이번에도 같이 일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나: 저도 그래요. 우리는 \_\_\_\_\_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 4 가: 언니 결혼 선물로 주려고 이틀 만에 만든 방석이에요.  
나: 아주 예쁘네요. 이걸 이틀 만에 만들었어요? 정말 \_\_\_\_\_.
- 5 가: 밤새 \_\_\_\_\_ 첫눈이 내렸네.  
나: 응,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어.
- 6 가: 만화책 좋아하세요? 탐정 만화는 이 책이 제일 재미있지요?  
나: 네, \_\_\_\_\_는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정말 재미 있어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 이야기해요

## 손발(이) 맞다 / 쥐도 새도 모르게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경하: 우리가 몰래 준비한 케빈의 깜짝 생일 파티를 못 하게 됐어요.

재영: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경하: 글썄, 소현 씨가 케빈에게 깜짝 파티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케빈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재영: 정말이에요? 비밀로 하자고 약속했는데 정말 손발이 안 맞네요. 이제 어떻게 하지요?

경하: 케빈이 눈치를 챘으니까 깜짝 파티는 안 되겠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 버려서 아쉬워요.

재영: 저도 그래요. 케빈에게 특별한 생일 파티를 열어 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생일 파티는 준비해야겠지요?

경하: \_\_\_\_\_

재영: \_\_\_\_\_



위의 대화문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 1 케빈을 위한 깜짝 생일 파티는 왜 못 하게 되었어요?
- 2 여러분은 만약 친구들이 자신의 생일 파티를 몰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 어휘

☐ 깜짝 파티   ☐ 약속하다   ☐ 눈치(를) 채다



<정조, 학문을 발전시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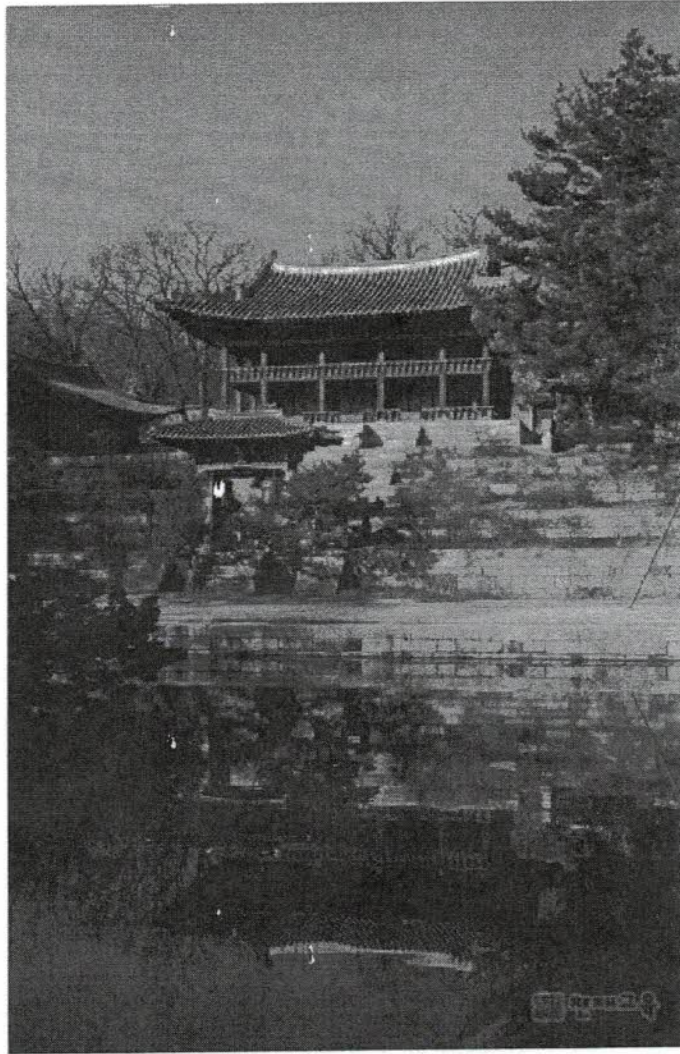
## 1. 학문을 좋아하고 백성을 아끼는 왕



정조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어요.

‘내가 왕이 되면 옛날 왕들이 지은 책을 비롯해 시와 그림, 그리고 내가 쓴 글까지 한 곳에 두고 보리라.’

정조는 왕이 되자 평소 품었던 꿈을 실행하기 위해 창덕궁 비원 옆에 아담한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이 바로 규장각<sup>1)</sup>이에요.



창덕궁 주합루조선 후기 왕과 신하들이 학문과 나랏일을 하던 규장각의 건물이다.  
이후 정조는 규장각 관리들에게 명했어요.

“앞으로 규장각에서는 의정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시오.”

의정부는 높은 벼슬아치들이 중요한 나랏일을 결정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이  
규장각에 기록으로 남게 되지요. 또 왕위에 오른 지 삼 년째 되던 해에는 서얼(庶孽)<sup>2)</sup>에게도 벼슬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어요.

“나라에 충성을 하는데 첩의 자식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소. 앞으로는 서얼도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하시오.”

유교의 가르침을 엄하게 따르던 조선에서는 본래 부인의 자식과 첩의 자식을 따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는 첩의 자식과 그 자손들을 서얼이라고 하며 벼슬을 주지 않았지요. 정조는 이 틀을 깨고 서얼도 어느  
자리까지는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정조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규장각의 규모는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들의 글이나 그림, 초상화뿐만 아니라 청나라에서 들여 온 책까지 보관하게 되었지요.

한편 정조는 효심도 남달랐어요. 정조는 영조에게 죽음을 당한 사도 세자의 아들이었어요.

‘불쌍한 아버님의 원혼(冤魂)을 달래 드릴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정조의 마음을 읽은 신하들은 사도 세자의 묘를 좋은 곳으로 옮기자고 했어요. 정조는 사도 세자의 묘를 수원 현릉원으로 옮기고, 다음 해 현릉원을 찾았어요. 현릉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오던 날, 고개를 넘던 정조는 가마 행렬에게 명했어요.

“천천히 가도록 해라. 이 고개만 넘으면 아버님의 묘가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사도 세자를 기리는 정조의 효심은 깊었어요. 또한 정조는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던 중에 가난 때문에 혼례도 올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살림이 어려워 혼인을 못 한 백성에게는 나라에서 혼례를 올려 주도록 하라. 또한 짝을 찾지 못한 젊은이가 있으면 관리들이 나서서 중매(仲媒)<sup>4)</sup>를 하도록 하라.”

이렇듯 정조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지요.

사도 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는 사도 세자가 죽을 당시의 일을 기록해서 <한중록>이라는 책을 남겼어요.

## 2. 문화의 황금기를 열다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에서 일하던 유득공은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다 발해에 관한 기록들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고려의 왕조가 발해를 빼놓고 신라, 백제, 고구려의 역사만 다룬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득공은 고구려의 후손들이 고구려 땅에 세운 발해의 역사를 정리했어요. 그리하여 정조 8년에 <발해고>라는 책을 완성했지요. <발해고>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만약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정리하여 국사의 일부에 넣고, 요나라나 금나라에게 빼앗긴 발해의 땅을 돌려받았다면 중국으로부터 작은 나라의 서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득공과 더불어 규장각에서 함께 일했던 서얼 출신의 사람으로, 이덕무가 있었어요. 집안이 가난했지만 욕심이 없고 글읽기를 좋아했지요. 이덕무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어느 날 이덕무는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앞선 가족들이 온 마을을 찾아다녔는데, 그는 영동하게도 관청의 담장 앞에 있었어요. 이덕무는 담장에 발라 놓은 옛날 책을 읽느라 해가 저무는 것도 잊었던 거예요.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소매에 붓과 종이를 넣어 가지고 다니며 생각나는 것들을 적었어요.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는 산, 냇물, 나무, 짐승 등의 이름을 낱낱이 적어 와 이름을 알렸어요.

또 욕심이 없어서 지방의 벼슬을 하다 물러날 때에는 돈 한 푼 모아 놓은 것이 없었으며, 규장각에서 나올 때는 하인이 없어서 동생이 짐을 옮겨 주었을 정도였지요.

만약 유득공이나 이덕무가 정조 이전에 태어났다면, 신분 때문에 벼슬을 하지 못하고 아까운 재능을 썩혔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학문을 중시하고, 신분을 뛰어넘어 인재를 뽑는 등 많은 개혁을 이룬 정조의 노력 덕분에 조선은 문화의 황금기를 이룰 수 있었어요.

#### 〈정조와 개혁 정치〉

정조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동안 해 오던 정치를 크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살림을 넉넉하게 하고, 인재를 길러 차별 없이 쓰며, 나라의 방비를 튼튼히 하기 위해 군사 제도를 고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 정조는 봉당 정치의 폐단은 막고 인재를 널리 뽑았어요. 수원에 화성을 쌓고, 여러 가지 제도를 고치는 등 개혁을 실시했어요.

### 3. 내용 정리

정조는 학문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고 믿고 이를 위해 규장각을 만들고, 서얼도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조는 뒤주에서 죽은 아버지 사도 세자의 일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해 아버지의 능을 경기도 수원으로 옮기고 자주 찾아갔습니다.



유득공이나 이덕무는 서얼 출신이었지만 정조 덕분에 벼슬길에 올라 조선의 학문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조, 학문을 발전시키다 (천재 학습백과 초등 스토리텔링 한국사)

<한자>

\* 다음 한자를 읽어보세요.

1.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左右( )를 잘 살펴야 합니다.
2. 여행을 떠나기 전 事前 ( 사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3. 後日( )을 위해 지금 체력을 아껴 두어라.
4. 자동차가 市内( 시 )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역사>

1. 영조는 나라가 바로 서려면 먼저 붕당 간의 치열한 다툼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붕당간 치열한 경쟁을 없애는 ( )을 강하게 펼쳤어요.
2. 영조를 도와 조선을 다시 일으킨 신하 중( )가 있었어요. 제 욕심을 차리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아무리 강한 사람에게도 바른 말을 잘 하는 성품이었어요.
3. 지방을 돌아 다니며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는 일을 하는 관직을 ( )라고 해요.
4. 영조는 정치적인 음모에 휘말려 아들인 ( )를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어휘>

다음 단어를 문장에 맞게 골라 쓰세요.

효, 여의다, 공양미, 동냥, 시주

1. ( )는 가족 내에서 지켜야 할 절대적 덕목이었다.
2. 아버지는 재산을 평소 다니던 절에 ( )하셨다
3. 심청은 몸값으로 ( ) 삼백 석을 받았다.
4. 그는 일찍이 부모를 ( ) 고아로 자랐다.
5. 그는 길에서 ( )을 하는 거지에게 주머니에 있던 돈을 주었다.





##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발목을 잡다

발목을 잡히다

애를 먹다

애가 타다

1 가: 어제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이겼지요?

나: 아니요, 이길 수도 있었는데 작은 실수가 \_\_\_\_\_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2 가: 어제 준기한테 빌린 책은 찾았어요?

나: 네, 겨우 찾았어요. 그 책을 찾느라고 \_\_\_\_\_.

3 가: 이번 주말에 같이 스키장에 갈래요?

나: 저도 가고 싶은데 회사 일에 \_\_\_\_\_ 갈 수 없어요.

4 가: 유학 간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기를 \_\_\_\_\_ 게 기다리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요.

나: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거예요.

5 가: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밤새도록 울어서 \_\_\_\_\_.

나: 왜요?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6 가: 고향 친구가 오늘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나: 아뇨, 제가 조금 더 있다가 가라고 \_\_\_\_\_ 내일 떠나기로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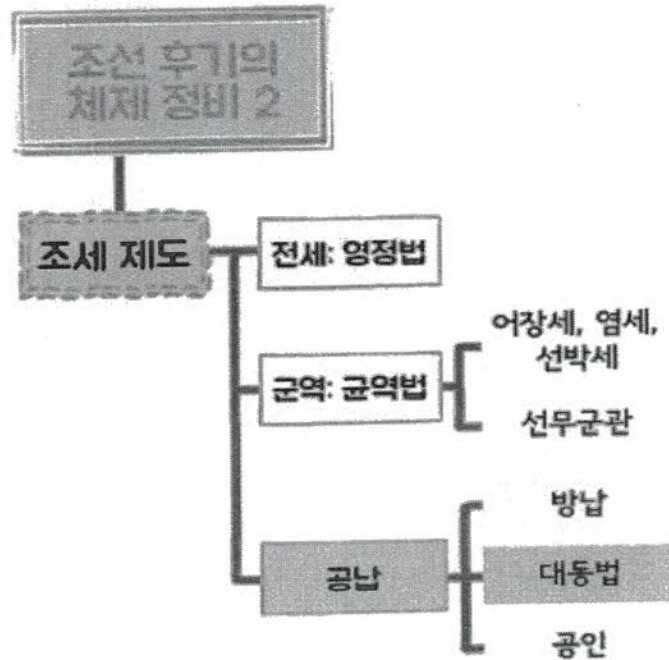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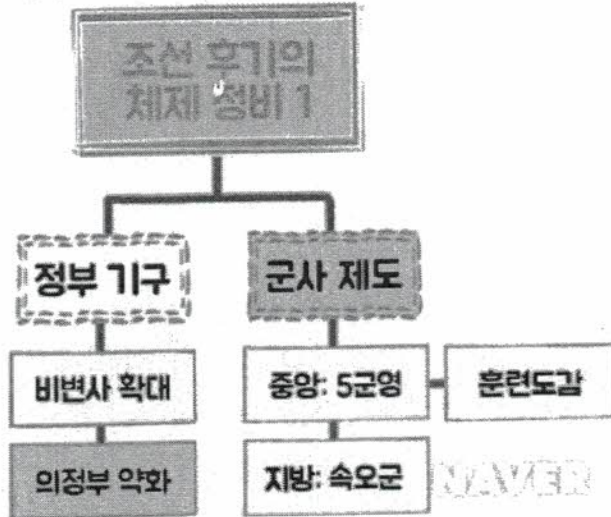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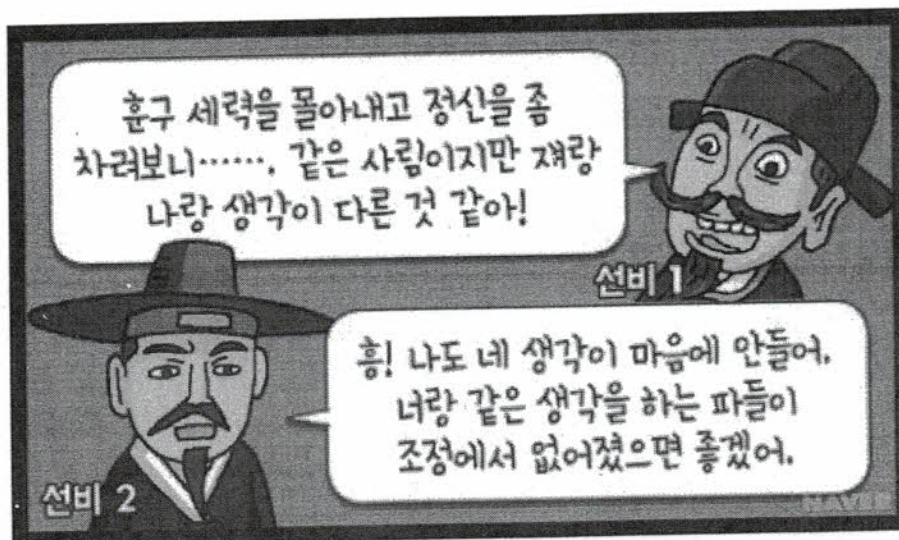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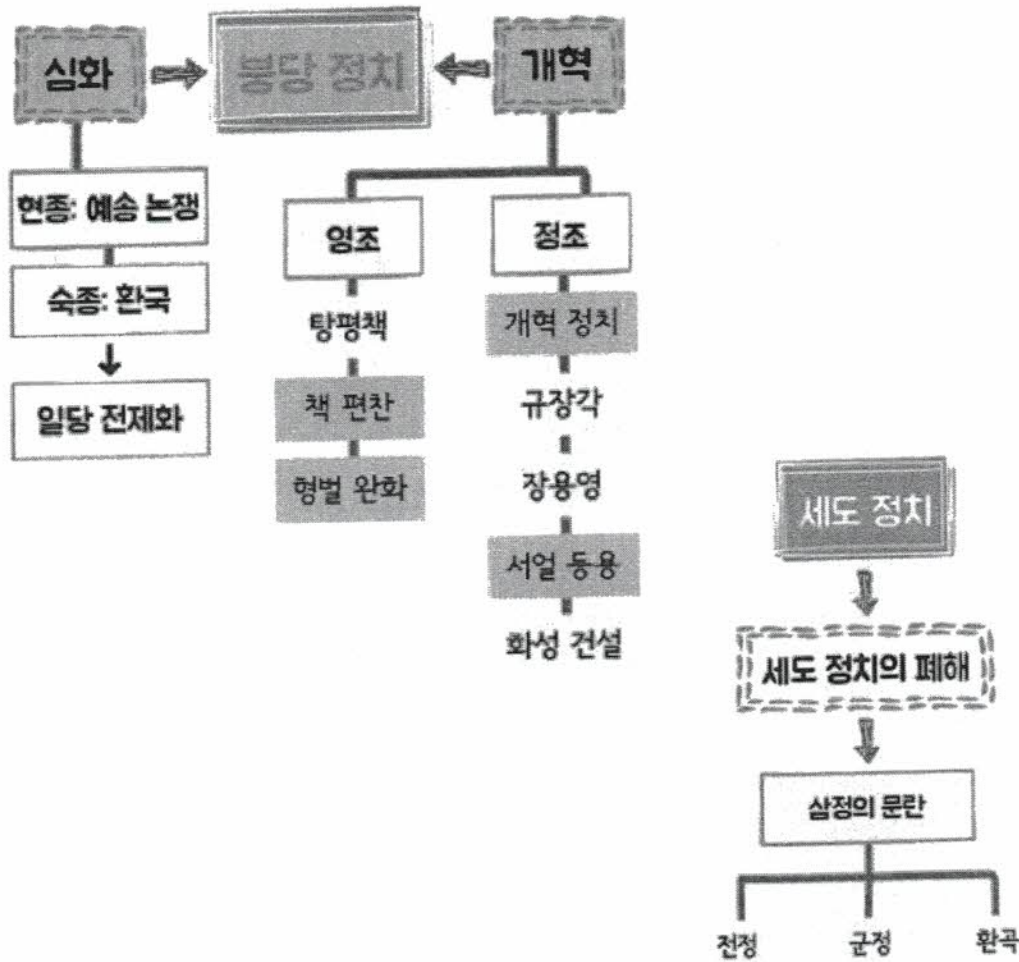
나: \_\_\_\_\_

##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의 실시

왜란과 호란을 겪은 후 조선은 정부 기구, 삼정 등을 정비하지요.  
선조 때부터 형성된 붕당은 현종과 숙종 대를 거치면 변질되었지만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  
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조~철종 대에는 세도 정치로 각종 폐해가 나타났지요.







## 1. 조선 후기의 체제 정비 1 : 정부 기구와 군사 제도

### 정부 기구

나라는 임금 혼자만의 힘으로 돌아가지는 않아. 회의도 해야 하고, 왕의 생각을 적절한 정책으로 바꾸고, 이 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등 많은 부서가 필요하지.  
이런 부서들을 통틀어 정부 기구라고 해.

### 비변사

비변사는 원래 여진과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임시 회의 기구였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긴 절차에 따르는 의정부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지.  
그래서 고위 관리로 구성원이 확대되었고 호란을 거치며 강력한 최고 정치 기구가 되었지.

### 군사 제도

#### 5군영

조선 후기가 되면 중앙군 체제가 바뀌게 되었어. 조선 전기의 중앙군은 5위라고 했지? 이 5위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든.  
그래서 훈련도감을 비롯한 5개의 군대로 중앙군을 만들었지. 그래서 5군영이라고 해.

### 훈련도감

조선 전기에는 양인이면 누구나 일정 기간 군인이 된다고 했지?  
그런데 왜란과 호란을 겪으며 군인이 직업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이렇게 만들어진 군대가 훈련도감이야.

### 속오군

조선 후기의 지방군을 속오군이라고 해.  
양반에서 노비까지 모든 신분으로 구성된 군대이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방어했어.

## 2. 조선 후기의 체제 정비 2 : 조세 제도

### 영정법

왜란과 호란을 겪으며 조선은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어. 농토는 황폐해져서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세금을 토지 1결당 쌀 4~6두로 고정시킨 영정법을 실시했어.

### 방납

지방의 낮은 직급 관리나 상인들이 공납으로 내야 하는 것들을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더 많은 대가를 거두어 가는 방법이 방납이야.  
백성 입장에서야 대신 내 주니 편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값을 너무 뺏기기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방납도 큰 고통이었어.





## 공인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겨났어.

특산물 대신 돈으로 걷으니 궁이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사와야겠지?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공인이야.

## 균역법

균역법(均役法)은 '균역 즉, 군대에 관한 세금[役]을 균등[均]하게 하는 법[法]'이라는 뜻이야.

균역은 한 사람에게 이중 삼중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었어.

그래서 군대에 직접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을 내야 하던 균역을 1년에 1필로 줄여주기로 했어. 이러한 균역법은 영조가 실시하였어.



## 어장세, 염세, 선박세

어장세는 고기잡이를 하는 곳에 부과한 세금, 염세는 소금을 만드는 곳에 부과한 세금, 선박세는 배에 부과한 세금을 말해.

이런 세금들을 걷어 균역법의 실시로 부족한 돈을 메웠어.

## 선무군관

균역법의 실시로 백성에게서 더 이상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 이제 양반에게로 눈을 돌려야겠지?

양반의 특권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당연히 양반은 반발을 할 거야.

그래서 특별히 선택된 군인이란 뜻의 선무군관이란 칭호를 주고 대신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었어.

## 3. 봉당 정치

### 심화

### 예송 논쟁

예절을 놓고 논쟁을 벌인 것을 말해.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했어. 이때 효종을 왕이니 첫째 아들로 보아야 할지, 죽은 소현 세자가 있으니 둘째 아들로 보아야 할지 토론이 벌어진 거야. 얼마 후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



## 환국

숙종 때 집권 붕당이 급격히 교체되는 일이 잦았어. 이를 환국이라 해.

환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붕당 정치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어.

## 일당 전제화

붕당이 교체되면 다른 붕당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 한 붕당이 집권하면 다른 붕당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이로 인해 정부는 한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가 이루어졌지.



## 개혁

### 영조

숙종의 아들로, 형인 경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 영조(1694~1776)는 노론 세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붕당의 피해를 몸으로 겪었던 거야.

즉위 후 영조는 붕당을 고루 등용하기 위해 애썼어.

### 탕평책

붕당의 폐해가 심해지자 영조는 각 붕당에서 사람들을 고루 등용하는 정책인 탕평책을 펼쳤어.

이러한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탕평파라 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나랏일을 보기 시작했지.

이런 의지를 알리기 위해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웠어.



탕평의 의미를 담은 탕평채



## 정조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 세자의 아들인 정조(1752~1800)는 즉위 후 영조의 뜻을 이어 탕평책을 실시했어.

하지만 성격이 좀 달랐지. 영조가 각 붕당을 고루 등용하는 것을 중시했다면 정조는 옳고 그름을 적극적으로 가려 옳은 정책을 주장하는 붕당을 등용해 나랏일을 했어.

## 규장각

정조는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치 기구로 규장각을 세웠어. 규장각은 왕실의 학문 연구 기관이자 도서관이라 할 수 있어.

정조는 젊고 유능한 관리를 뽑아 규장각에서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지. 정조는 이들의 연구를 나라 운영에 반영했어.



『선원보감』에 나오는 정조의 어진



정조가 세운 왕실 도서관이자 정책 토론장인 규장각

## 장용영

세손 시절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정조는 자신을 지킬 군대가 필요했어. 이런 목적을 위해 설치한 군대가 장용영이야.

## 화성

정조는 아버지 사도 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수원에 화성을 건설했어.

화성을 지을 때 실학자 정약룡이 만든 거중기가 사용되어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 정조는 화성을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어.



수원 화성의 남문인 팔달문

#### 4. 세도 정치

봉당 정치는 왕을 중심에 놓고 그 밑에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던 정치 형태야. 반면 세도 정치는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몇몇 가문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정치 형태라 할 수 있어.

#### 세도 정치의 폐해

몇몇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들은 주요 관직을 독차지해 버렸어. 이들은 벼슬을 사고파는 등 온갖 나쁜 일을 저질렀지. 이렇게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해 정치를 어지럽힌 일을 세도 정치의 폐해라고 해.

#### 삼정의 문란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해. 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를 붙여 가을에 갚게 하는 것을 말해. 세도 정치 시기에는 이 삼정이 변질되어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받았어. 이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

#### 전정

수령은 전정으로 거둔 세금을 몰래 빼돌리고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토지세를 거두었어.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정해진 토지세 이상의 세금을 거두었지.

#### 군정

군포와 상관없는 연령대인 어린아이와 60세 이상의 남자,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어. 또 세금이 무거워 도망간 이웃의 군포도 대신 내게 했지. 이렇게 군대에 가는 대신 내는 세금이 바로 군정이야.

#### 환곡

관청은 환곡의 이자를 이용해 자신들의 재산을 쌓았어. 그래서 환곡의 양을 늘려나갔지. 농민들은 강제로 환곡을 떠안게 되었고, 심지어 환곡을 받지 않고도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었어. 모래가 섞인 곡식을 빌려주었지만 순수한 곡식으로만 갚게 해 삼정 중 환곡의 문제가 가장 컸어.

[네이버 지식백과] 봉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의 실시 (생방송 한국사 9, 2017.04.03., (주)북이십일 아울북)